

- 2025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 6월 19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 6. 5.(목) ~ 6. 13.(금)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복지동행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 용강동 주민센터, 합정동 주민센터
- 마포복지재단

4. 감사실시 결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도시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은 하	복 지 동 행 국	복지도시 위원회실	장홍용	최은영
	[부위원장] 오 옥 자	마포복지재단			
	[위 원] 권 인 순	환 경 녹 지 국		신준호	김자영
	고 병 준, 김 승 수, 장 정 희, 한 선 미	도 시 관 리 국			
		보 건 소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 부서 및 주민센터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2025. 6. 5.(목)	마 포 복 지 재 단 복 지 정 책 과 실 뿌 리 복 지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5. 6. 9.(월)	어 르 신 동 행 과 장 애 인 복 지 과 가 족 정 책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5. 6. 10.(화)	용강동 주민센터 합정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5. 6. 11.(수)	깨 끄 한 마 포 과 자 원 순 환 과 맑 은 환 경 과 공 원 녹 지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5. 6. 12.(목)	주 택 상 생 과 도 시 계 획 과 건 축 지 원 과 부 동 산 정 보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5. 6. 13.(금)	보 건 행 정 과 위 생 과 건 강 동 행 과 의 약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5.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복지동행국

■ 복지동행국 [2건]

- 수감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 누락, 예산 표시 오류 등 잘못된 내용이 많음. 이는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고 판단됨.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와 오타 누락 잘못된 정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람.
- 복지동행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규격화가 되었음 좋겠음. 사업별로 특화해서 진행해야 하는 만족도 항목도 있겠지만 기본적,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규격화하여 추진해 주길 바람.

■ 복지정책과 [11건]

- 돌봄SOS사업 관련 5대서비스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추가 승인된 사례 1건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 긴급돌봄 관련 저소득자 외에 일시적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실뿌리복지기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관내 단체 및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으니 적극적인 홍보 바람.

- 마포복지재단 운영지원 관련 '성과중심 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에서 "성과중심" 용어를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임. 성과중심 평가는 직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직원들이 실적 내기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국 부담은 주민들에게 간다고 판단됨.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하여 통합돌봄이 국가 추진 사업이고 광역·기초가 함께 하는 사업인 만큼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시행 되면 구에서도 조례 제정 및 추진할 사항들이 많을 것이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병원 등 시설의 관내 유입도 중요해 질 것이므로 우리구 통합돌봄의 운영 및 추진에 있어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길 바람.
- '일상돌봄서비스 공모' 관련 신청서 등 자료 요청함.
- 소나무센터의 기간제근로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임.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함.
- 소나무센터가 위기 사례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 혹은 실패 사례별로 분류해서 자료제출 요청함.
- 마포복지재단의 위수탁이 너무 많음. 복지관련 특화된 분야에 한해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길 바람. 지금은 위수탁은 그만 멈추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임. 재단 16개 산하기관 기관장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과 경영평가 추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재단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까지도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영평가 안에서 위수탁 산하시설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같이 포함시켜 부서에서 제대로 된 성과 경영평가를 해야할 것임.

- '소나무센터'의 상세한 업무 및 사례 자료 제출.
- "마포 징검다리 주택" 83개소에 대한 주소와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청

■ 실뿌리복지과 [5건]

- 지역사회통합돌봄 발굴 및 위기가구 발굴 관련하여 현 제도권이나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을 고수해야 고독사 등 사건 발생 전에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바람.
더불어 발굴 등 시스템 운영에 있어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실뿌리 복지센터, 여성 동행센터, 동 주민센터 등 용어가 너무 정신없고 생소하고 헷갈림. 담당부서 직원도 헷갈려하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에게 용어가 가 닿을 수 있을지 의문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타이틀은 안 바꾸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길 바람.
- "1인 중장년층 더이음사업"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가면서 더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나 더 설계한다든지 연령별 층층이 사업 등을 만드는 등 복지 동행국 차원에서 논의 바람.

- 각 동에 있는 실뿌리복지동행단 50명 중에는 통반장이 많음. 통반장이 누구보다 동네를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들을 동 행사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한다는 등 1인가구 발굴 및 동네 위험군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그리고 타구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길 바람.
- 노령 연금 등 급여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자격변동이 생겼을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 시 가족에게 추후 급여 관련 처리 절차를 적극 안내해 주길 바람.

■ 어르신동행과 [19건]

- 경로당 중 인원이 극히 적거나 거의 운영 활동하지 않는 경로당은 폐쇄 조치 하는 등 현황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람.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화재예방이나 미끄럼방지 등 안전 대책에 취약한 경로당이 존재함. 안전관리강화에 신경써 주길 바람.
- 13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4개 사업단, 25년도 56개 사업단에 대한 세부내역 요청함.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냉난방 보조금과 청소비 금액이 높으니 확인 검토바람. 경로당 물품, 냉난방비, 청소비 등 이용 인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절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제1공장이 제2반찬공장 개소로 인해서 중단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내부평가, 외부 자문 내용 / 제1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기존 기계설비, 공간, 인건비는 어떻게 관리 되는지? / 제1공장이 대기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관리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책임부서의 예산 계획 및 손실 최소화 대책 / 4,000명 수요 확대를 위해 제2공장을 개장한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유 / 4,000명에 대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요예측이 월 별로 몇 명인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료 요청 / 제1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해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내용/ 제2공장 개소 후 급식대상자가 2.5배 이상 확대될 시 위생 안전, 유통관리, 인력 보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공장 간의 운영 기준 생산품질 차이는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료 요청함.
- 민들레사업단 관련 일체 자료 제출 요청(민들레사업단 명단 포함) / 민들레사업단 연도별(2023년~2025년) 사업비 내용 제출 요청 / 민들레사업단 한 조가 7~8개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정리된 자료 제출 요청 / 민들레사업단에 대한 복지도시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많음. 민들레사업단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길 바람.
-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지정취소, 경고, 누적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형식적 점검이 아닌 질적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고 해당 부서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도 감독을 요청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어르신들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부서에서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포함시키지 않았음 함.

2기에는 기존 사업 중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시켜 추진해 주길 바람.

○ 생활지원사 수에 비해 담당 어르신 수가 많음. 생활지원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람.

○ 올해까지 효도밥상 이용대상자 4,000명 확보에 대한 계획 제출 요청함.

○ 올해 효도밥상 대상자 4,000명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강요 및 인원 동원, 숫자를 부풀리는 등 성과달성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민들레사업단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바람. 현재는 민들레사업단의 활동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함. 활동면에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길 바람.

○ 2025.5.21. 효도밥상 제2반찬공장 하자복구 및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림. 4월 현장방문 및 간담회 때도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주었고, 누차 향후 추진 상황들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의위원회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복지도시위

원회 위원들은 일체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심의위원회 결과 복지재단 책임 비율이 결정된 상황을 알게된 이 상황은 복지도시위원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제2반찬공장 누수 사건의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숨기고자 하고, 위원회가 알고 있지 않은 한 먼저 보고조차 하지 않고, 알아도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위원회를 무시하는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제2반찬공장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요청함.
- 경로당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효도밥상 관련하여 급식 지원 사업이 실제 식사 인원과 등록 인원 기준이 상이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경로당 전수조사에 허위가 많고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함. /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 요청함.
- 아현동은 92%가 아파트로 경로당이 모두 사립임. 그러다보니 8%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로당도 없고 무더위 쉼터도 없음. 아현동처럼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람.
- 경로당에는 90세 이상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음. 특히 자체 취사를 하는 경로당은 더욱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화재 발생 시 고령의 어르신들은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음. 경로당 화재대피 비상구에 대한 검토와 화재 예방,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임.

- 경로당 노인분들이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심. 쌀 부족에 대해서 구청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람. 그리고 사립경로당 중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 보임. 경로당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주길 바람.
- 제2반찬공장 관련 하자복구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합의서 제출 요청함.
- 기 제출한 '취약계층 노인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에 구체적인 일자리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더해서 제출 요청함.
- 장기요양요원 관련 노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들에게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었음 좋겠음.

■ 장애인복지과 [5건]

-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유아차 이용자,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위치, 주차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이나 카카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함.
- 더불어 택을 낮춘다거나,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람.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모집이 어렵고, 우리구에는 누구나운동센터도 있는 만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더불어 누구나운동센터나 장기요양원 등에 취업 연계까지 될 수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장애 영역이 넓고 다양한 만큼 현 생활체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계단 정복 지도' 로 활동하는 캠페인 법인이 있음. 이 법인과 구가 함께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구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공간 구성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관내 타기관, 기업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함으로써 확장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봄. 검토바람.
- 시청각장애는 중복장애로 볼 게 아니라 제3의 장애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시청각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음. 부서에서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관련하여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흡, 계약 관련 절차 미흡 등 점검 결과는 다소 심각한 사안으로 보임. 장애인거주 시설은 일반인들이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니만큼 구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 및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림.

■ 가족정책과 [11건]

- 여성동행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음.
사이트, SNS 홍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면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
- 2024년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별 운영 지도 점검 결과 관련 '합정동 마포구
9호점 키움센터'의 조치내용 중 '건물 전체 수도요금을 센터에서 납부한
내역'의 조치내용(협의서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지급되지 않는 관리자
수당 월 20만원에 대한 조치 내용 제출 요청함.
-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장소와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가 어렵다하면, 효도
밥상을 늘리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경로당에 돌봄
영역이 들어가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수월해질 뿐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
서도 더 편하고 편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키움센터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검토 바람.
- 아동학대 신고 관련하여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실질적으로 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뿐만아니라 오프
라인 교육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동주민센터 강당이나 서울형키즈카
페를 이용하는 등 교육이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 바람.
-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었음 함. 현재 데이트폭력,
스토킹 관련 조례 등 법적근거가 있고,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가 갈
수록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이 더 진행
되었음 좋겠음.

- 여성동행센터 운영 관련 방침, 지침, 규칙, 추진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함.
- 양성평등조례 규칙 관련 현재 규칙과 추진하려고 하는 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 요구함.
- 기존에 관내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1인가구 사업은 각 기관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한해서만 공모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1인가구 공모사업에 있어 이제는 새로운 활동이나 사업을 모색하는 등 확장성 있게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람.
- 실제 마포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임에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 1인가구로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주길 바람.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관련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가 존재 하는데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길 바람.
- 마포구에서 출산 후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시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가족돌봄 관련 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직원에게는 확실히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에게는 통합적으로 적극 안내해 주길 바람.

환 경 녹 지 국

■ 깨끗한마포과 [15건]

- 청소 용역업체 차량의 배기구를 위쪽(공중 방향)으로 변경하여 작업자들의 직접 흡입을 방지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 6월 1일부터 마포구 청소 차량이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들어오지 않고 민간업체로 들어가는 상황을 포착함. 어느 민간업체로 들어갔는지 보고 바라며, 청소 차량 이동 및 처리 과정을 투명화해주시기 바람.
- 홍대 버스킹 존 인근 철거된 담배꽂초함의 향후 활용 계획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또한 철거 조치가 흡연 민원 해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환경 공무원의 휴게실 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공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경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 정책 재검토 및 작업 효율 향상·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현대화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공중화장실의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 체계 확립과 야간 시간대 청결 문제 개선 방안 마련해주시기 바람.
- 주민참여 자율청소체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대한 공무원 포상은 휴가 및 복지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해주시기를 바람.
- 담배꽂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대와 함께 합동 단속 실시하고 있는데, 홍대 애경백화점 뒤편도 무단투기가 심각하므로 합동 단속 지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람.

- 청소차 차고지 환경이 열악한데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련해, 업체별 계약 금액 및 입찰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드리며, 업체 선정시 경험과 전문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선정 바람. 또한, 사업 기간과 관련해, 문서 상의 기간 표기와 실제 사업 기간이 불일치하므로 주민 혼선 방지를 위해 수정 필요함. 관할에 관해서는, 과업 지시서에서 1~4권역과 흥대 특별권역(5권역)의 양식이 다르므로, 향후 행정자료 작성 시 통일성을 요청드림. 5권역만 예산이 3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당 부서가 원가계산 용역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작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책임있는 행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바람.
- 쓰레기 양은 감소하나, 봉투 판매는 증가하는 모순이 있으며, 쓰레기 봉투 자체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행정 데이터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또한,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은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항인데, 조례 제정 시 입법 예고가 생략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준조세'이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람. 뿐만 아니라, 조례에 490원인 20L 봉투를 4,500원까지 인상 가능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쓰레기 민원(생활, 재활용, 음식물) 처리가 통일화되어, 내부적으로 과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직원의 물품 오인 수거 민원이 있었는데, 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면서 구청·대행업

체·대행업체 간 책임소재가 명시되는 계약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람. 또한, 이 민원에 대한 부서의 대응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직원들에게 민원 친절교육을 제안드립니다.

-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픽토그램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QR 코드를 삽입하여 재활용 여부나 폐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련, 차량대비 운전원 수가 적으므로,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 지 보고 바람. 운전원 부족으로 수거원이 운전까지 병행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자가 주간에도 작업하는 등 근로기준 위반 우려되므로, 수거원 운전 병행과 과도한 근로 시간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대행업체 인력 관리·감독 강화 및 근로 계약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당부드립니다.
- 살수차 및 노면흡입차 작업 구간이 을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갑 지역도 늘려주시기 바람.

■ 자원순환과 [16건]

- 성상 검사 데이터 상 재활용 65%는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은 조례로 시행되었지만, 주민이 원하는 정책은 아니었음. 정책 집행 시, 주민 수용성 고려해주시기를 바람.
-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위치 안내 지도를 만들어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람.

- 마포구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의 모든 비용을 항목 분류 및 합산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 2025년 상반기에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7개소가 설치 예정인데, 설치 여부 및 시기, 장소에 관한 자료와 소각제로 가게 신청 아파트 단지 중 이미 신청을 취소한 곳이 명단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제출해주시기 바람. 이미 아파트에서는 주1회 재활용 수거 체계가 있으므로 소각제로 가게 아파트형 운영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컨테이너를 상시 관리할 지킴이 배치 시 발생할 고정 인건비는 예산 낭비이므로 사업 운영을 전면 재고해주시기 바람. 소각제로 가게가 운영 3년차임에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나 감량 효과는 없고 오히려 쓰레기량은 증가되어 현실적인 성과가 없음. 방향 전환을 해 새로운 쓰레기 감량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상암동 주민 우선 채용 원칙을 실질적 반영하고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상암동 주민의 복지와 연계가 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요청드림.
-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었음에도 소송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진행 중인 소송에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주시기 바람.
- 기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옆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드림. 또한, 수거함 설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므로 전수 조사 실시 및 수거함 배치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 봉제원단 재활용 봉투 배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봉제 가내 작업장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림.

- 커피박을 수거해 퇴비와 사료로 만들던 사업이 현재는 고형연료화로 변경된 상황인데, 민간업체에 무상으로 넘기기보다는 재정수지불합리가 있으므로, 마포구의 수익으로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였는데, 감량 추세가 계속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 음식물 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 유지가 필요하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주시기 바람.
- 소각제로 가게 컨테이너 및 분리수거함 구매 비용이 '기관 공통 경비'로 처리 된 것은 부적절함. 이는 사전 계획된 사업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음.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림.
-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람. 쓰레기 처리 관련해 깨끗한마포과와 자원순환과 간 부서 간 역할 중복을 해소해야함.
- 소각제로 가게의 기존 설치형태가 단순 분리수거함 수준이며, 아파트형 보다는 주택가형이 더 시급함. 또한, 이동식 수거 차량 도입을 제안하며, 담당 부서의 검토 바람.
- 1회용품 줄이기 추진사업에서 망원시장·월드컵시장에서 다회용기 및 장바구니 이용 시 종량제 봉투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장바구니를 이용해도 쿠폰을 받은 적이 없음. 실제 업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폐비닐 수거 정책에서,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비닐을 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또한 폐비닐은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므로, 정책 방향성의 전환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맑은환경과 [7건]

- 환경학교 교육 현장 체험 장소로 활용 중인 소각제로가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이 노후됐거나 운영 중지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 효과보다 후퇴가 우려됨. 기존에도 아이들의 환경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영상 제작 요청을 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빠른 제작 요청 드림.
- 하천 정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 구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면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마포 환경학교 운영 사업에서 환경학교는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교육 내용의 질, 참여자 구분, 운영 가능성 등 총체적 점검을 바람.
- 염리 청년주택 공사 민원과 관련해 관계 부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리고, 소음 측정 타이밍 조작 논란 방지를 위해 불시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람. 또한 타워크레

인이 인명을 위협하고 폐수 방출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는데, 행정 처분 이상의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람.

- 생활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 마포 관내에서 미세먼지 측정 장소가 망원1동 주민센터 옥상인데, 측정 장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민감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센서를 장착해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람.

■ 공원녹지과 [12건]

- 기존에 녹색여가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실적 자료 일체 제출 요구드립니다.
- 공원별 운영 프로그램이 마포 을 지역에 편중되어있으므로, 갑 지역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시 단순 유지보수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보양제·완충장치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보완사항을 반영해주시기 바람.
- 성미산 정상부에 햇빛 차단 수목 보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연남지하차도 인근 수목에 대한 철도청에 협의 및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소독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또한,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기구가 혼재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조성 시에는 공간을 구분하고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잔다리(홍익)문화공원의 경로당 및 화장실 철거 예정임. 경로당과 관련하여는 어르신동행과와 함께 논의하고, 화장실은 현재도 공용 화장실이 부족하므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마포구민센터 앞 마을버스 9번 종점에서 의자와 그늘막이 없어 버스 대기 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음. 해당 위치에 의자와 그늘막 설치 검토 바람.
- 도심 가로수로써 소나무가 적합한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음. Chat GPT 활용 결과 마포구의 도시환경에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더 적절한 수종이 있으므로 식재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나무가 기업 기부 식재라도 장기적 생육 가능성과 적합성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 마포구에는 쓰레기 소각장 이슈가 있는데, 유일하게 운영되던 녹색여가센터를 10군데 이상 설치·검토 중인 맘카페로 조성한 것은 정책적 오류라 평가함. 마포구의 환경에 대한 진정성,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 드림.
- 꽃길 조성사업에서 공원녹지과와 동 주민센터가 각각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일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구-동 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람.
- 과거 대한노인회에서 수행하던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안전 점검 일자리 사업이 현재는 마포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데, 이는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것이었음. 행정 편의적 직영 운영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와의 타협을 통해 노인 일자리 복원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도 시 관 리 국

■ 주택상생과 [6건]

-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가 2~3년 연속 수혜를 받는 등 지원 대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동일 단지의 연속 수혜를 방지하고 수혜 이력이 없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총괄 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점검 항목 개선 및 보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부족하고 알림존, 팝업존 등 어디에도 홍보 자료가 없음. 지역주택조합 인근이나 지하철역 근처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에 현수막 게첩이나 전단지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사례를 예방해주시기 바람.
-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과거 준칙)과 관련해 현재 권한쟁의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관계 직원들은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세부 진행 경과 및 이슈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람. 또한, 서울시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따라 직원 교육을 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요청드림. 뿐만 아니라, 권고안은 입주인 권리 침해 및 헌법·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폐지 또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권고안이 적용된 16개 단지에 대한 현황을 명확화하고 주민 피해 방지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KT부지 청년주택 공사와 관련해 일요일 공사 강행, 소음 및 분진 문제, 타워크레인 작업 시 감리 부재 등의 집단 민원이 있는데, 이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감리 관리 소홀 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람. 또한 사전예방적 행정지도도 강화해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소형 아파트 등 소외된 단지 주민들도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식 강화해주시기 바람. 또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되기를 요청드립니다.

■ 도시계획과 [5건]

-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유지보수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및 요청사항의 신속한 업데이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 도화동 오피스텔 민원과 관련해 수분양자와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수렴해주시기 바람.
- 상수·당인 역세권 개발 지연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상황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명확한 정보 전달하고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이 조직 개편으로 예산정책과로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전 경과 및 설명 책임이 있음. 이관 전후 부서 간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람. <차해영 의원>
- 마포 전자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사업이 예산정책과로 이관된 경위와 경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건축지원과 [8건]

-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실태조사 시,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주택까지 포함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고, 주택상생과와 협력하여 노후 소형주택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위반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실질적 시정 유도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향측 판독자료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및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제도를 적극 홍보 요청드리고,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사전 대응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배포해 후속조치 실효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람.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지원과에서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세무서나 보건소 등 타 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를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무허가 건축물 현장 조사 후,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 사항이 모든 유관 부서와 자동 공유되도록 시스템 연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구청장 소유의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춰 행정 처리해주시기 바람.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재 중앙도서관 전시 등 내부 활동에만 그치고 있음. 마포 관내에는 홍익대학교 등 건축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교가 있으니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과 직접 연계한 건축 체험 활동을 추진을 검토해주시 바람.

■ 부동산정보과 [10건]

- 주민 이용이 거의 없는 명예도로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의문이므로 명예도로 지정의 실효성 및 목적성을 검토하고, '하늘길'의 경우 페인트 도색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명예도로 조성 시 안전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람.
-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지도·점검 시 민원 발생 시뿐만 아니라 상시 또는 정기 점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교육 시, 문자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람.
-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가 서울시의 상담 서비스와 유사하므로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 건수 증대를 유도해주시기 바람.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또한, 현장에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증 착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는 자율 사항이지만 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유도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끼리끼리길'의 경우 사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동료끼리, 연인끼리 등 긍정적인 의미로 의도되었다면 QR코드와 함께 그 설명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 '끼리끼리길', '설렘길' 등 명예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 표지판 및 안내판이 심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 향후 위원회는 절차를 필히 준수해주시기 바람. 또한, 명예도로에 관한 절차적 매뉴얼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주소정보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면심의만 진행되고 있는데, 대면 회의를 활성화해 심의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또한, 심의위원이 현재 9명인데, 구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해 총원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 개편을 해주시기 바람.
- '하늘길'의 파란색 도색은 시각적 인지도 강화 효과가 있으며, 고객 유입으로 이끌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안전 관련 민원 사항을 수용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과거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현재 3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확대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10건]

- 방역소독과 관련해,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반복 방역활동을 했는데,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일지, 증빙서류 등 작성 관리를 직접 확인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시기 바람. 또한, 집중 방역 시기와 비집중 시기를 구분해 방역해주시기 바람.
- 방역 소독 취약 기간을 확대하고, 자율방역단·기동반 운영 및 보건소의 관리 체계를 점검해주시기 바람. 또한, 쯔쯔가무시병 등 방역 사각지대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람.
- 러브버그 등 생활불쾌 곤충 민원 처리 시, 주민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및 해충 증가에 대비해 사전 예방 방역을 강화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방역 소독과 관련해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교회, 학교 등에 자살 예방 캠페인을 홍보하고, 자살 유족 대상 특수청소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람.
- 러브버그가 익충이고 7월 중순 경 더운 여름철에는 자연 소멸되므로 홈페이지에 러브버그의 생태적 유익성과 자연소멸 시기 등에 대해 주민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람.

- 현재 생명존중 교육이 사람에게만 진행 중이므로 동물 포함 생명존중 교육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는 HIV 신속 검사 등 일부 항목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확대하고, 연남동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 1인 가구 청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타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마포구에서도 청년담당 부서와 협업해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관리 시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기기 약품이 미충전되거나 기기 자체가 방치되어 녹슬고 고장난 사례가 빈번함. 용역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위생과 [5건]

-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행정과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해주시기 바람. 또한,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홍보 활동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 홍대 클럽 마약 단속 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염리초등학교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해 해결해주시기 바람.

- 효도밥상 반찬공장과 급식소에 위생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추진 시 현황 및 계획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에 넣어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시, 소방·전기 안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행동지도에 그치지 말고 엄격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람.

■ 건강동행과 [15건]

- 대상포진 백신과 관련해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더 효과적이므로 단가가 높더라도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공원이나 빗물받이 등에 심각한데 무단 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설치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흡연 부스 내 악취로 흡연자들도 기피하여 결국 거리에서 흡연하는 상황이므로, 흡연 부스를 청소하고 환기 시스템을 강화해주시기 바람.
- '처끝센터'의 취지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명칭 취지에 부합하려면 미혼부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미혼모 등 한부모 임신부 가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의 '처끝센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대상자 발굴 방식이나 홍보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유관기관 연계와 홈페이지·오프라인 채널 등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람.

- 치매안심센터가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는데, 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등 이동 편의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또한, 치매센터를 찾기 쉽게 하는 안내 표지 확충도 제안드립니다.
- 보건소 홈페이지의 임신·출산 관련 메뉴를 클릭 시 에러가 발생하므로, 홈페이지 오류를 즉시 점검하고 조치해주시기 바람. 또한 임신·출산·육아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사업과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사업 확대와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치매관리사업에서 월 3만원 지원은 저소득 치매 환자에게는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지원금을 상향해주시기 바람.
- 냉동 난자 사용보조 생식술지원 사업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둘다 공통적으로 실적에 비해 예산 과다 편성됨. 향후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에 기반해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람.
- '처골센터' 라는 명칭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기에는 모호하고 감성적이며 함경도 방언임. 호기심 유발보다는 신뢰감을 주고 행정기관의 권위가 느껴지도록 명칭 변경 또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전자담배는 담배 성질이나 연초 앞이 사용되지 않아 담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대해 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향후 적극적인 대응 및 관리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75세 이상 어르신 통계를 파악해주시고 효도밥상 사업과 연계해 관리해주시기 바람. 또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장기적 계약 및 인력 연속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 건의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행사 계획 시 의회에 사전 홍보를 하고 구의원 초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금연 캠페인과 흡연 권리 보장 정책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중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됨.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시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처끝센터' 와 관련해 처음에 처마 끝 센터로 오인할 정도로 명칭이 생소하므로 명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림. 또한 이 사업이 기존 업무 보고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센터 개소식 당시에도 구의원이 초대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구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의약과 [3건]

- 자동심장충격기가 소규모 경로당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대상 장비인 만큼 반복적인 교육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람.
- 홍대 헌혈의 집에만 상품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람. 혈액 수급은 국가 보건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생들의 헌혈을 장려해주시기 바람.
- 마약류 익명검사 제도는 상습 마약 사용자들이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가 점검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또한 검사받고도 기관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해주시기 바람.

동 주 민 센 터

▣ 용강동주민센터 [21건]

- 용강동에 시청각장애인이 6명이 있음. 시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6명 시청각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라며,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람.
- 각 동마다 진행하고 있는 동 특화사업 '아주 작은 음악회'를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그리고 몇몇 주민들 이렇게 참석자들이 늘 비슷하고, 너무 똑같은 형식으로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임. 동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좀 지양하길 바람.
-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착용한다는 웨어러블 캠이 악성민원이 발생할 시 직원들이 실제 착용한다는 것이 당사자 직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추진해 주길 바람. / '직원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직원들한테 압박으로 느껴지고 부담이 될 수 있음. 역량 강화보다는 사례 중심 교육 등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표현해 주길 바람.
- 용강동 북한이탈주민 관리 현황 자료 요청함(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취약아동, 미취학 아동 등)
- 용강동 경로당은 모두 사립경로당임. 큰 평수의 경로당에 비해 이용인원수가 적은 상황에서 경로당 회원들, 아파트 관리측과 협의하여 사립경로당을 효도밥상 활용 외에 공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림.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

는지, 어르신 건강 관련 돌봄 등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요조사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에서는 경로당 공간을 아파트 주민이 아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사업을 시행해서 활용할 수 있길 바람.

- 경로당에 보급되는 구급함에 소화제 등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한 의약품들을 구비해 주고, 의약품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챙겨 신경 써 주길 바람.
- 동주민센터에서도 케이블을 연결해서 마포구의회 회기 중 복지도시, 행정건설 위원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무장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각 동마다 '누구나 가게'가 있음. 동주민센터에서 문턱낮은 곳 혹은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 등 누구나 가게 위치를 파악해서 구청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준다면 마포구 전체 누구나 가게 로드맵 구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로드맵이 확대 구축되어 주민들이 구글 지도나 카카오 등을 통해 누구나 가게 위치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또한 동주민센터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최일선 기관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개선됐음 좋겠다하는 의견을 동에서 구로 전달해 주길 바람.
- 직원들의 고충,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의 마련과 직원들이 진정 원하는 격려와 함께 동장, 간부들이 직원들을 늘 세심하게 살피주길 바람.
- 염리초등학교 포장마차 문제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임. 이제까지 상인회, 주민자치와 함께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못했던 부분임.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와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공공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모든 동에서 추진하는 '긴급 재난 안전 자금 운용'이 동특화사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음. 16개 동 공통적으로 하는 공통사업과 동특화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임. 그리고 현재 주민참여예산, 자원봉사프로젝트, 동 특화사업 등 가짓수가 너무 많고, 직원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동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 및 대처하는 사람은 동 직원이나 자원봉사 주민들이 될 경우가 많음.
위 상황에서의 대처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과 이후에도 이 분들에 대한 심리 정신적 상담이 가능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진해 주길 바람.
- 염리초등학교 포장마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용강동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함으로써 단속이 더 많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독려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련하여 젊은 사람들은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실제로 영화, 음악, 도서 구매로 사용이 어려우니 카드 사용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음.
동에서도 이러한 노인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고, 구청으로 전달,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용강동에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1인가구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돌봄 sos 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례 자료 제출 요청.
-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효도밥상 이용자 중 남성의 이용 비율이 낮음. 효도밥상에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에서 더욱 신경써서 추진해 주길 바람.
- 염리동 신호 체계로 인하여 출퇴근 시 이전보다 강변북로 진입이 어려워졌고 교통혼잡이 심해짐에 따라 도화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 용강동에서 도화동과 상의 협조해서 교통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람.
- 새마을 자율방역 시행 시 모기 유충이 많은 시기에 선제적으로 모기 유충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적 방역을 하면 이후 방역이 굉장히 수월해짐. 용강동도 들쭉날쭉 체계없이 방역하지 말고 하수구라든가 모기 유충이 많은 곳을 집중적,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주길 바람.
- 동행일자리 근무상황일지를 확인해 보니 서명 자체가 하루에 한꺼번에 썼다는 느낌을 받았음. 그리고 서명을 사인이 아니라 이름 석자를 명확히 본인 필체로 기입하도록 시정조치바람.
- 자원봉사센터 상담사 지급 조서에 담당자, 동장 날인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근무상황부에도 한 사람이 작성한 걸로 확인되는 곳이 있음. 시정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요청함.

■ 합정동주민센터 [26건]

-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림 장비 보급을 더욱 확대해 주길 바람. / 합정동에 시청각장애인이 1명이 있음. 시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1명의 시청각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라며, 늘 관심있게 챙겨주기 바람.
- 시청각장애인 1명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함.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자료의 단위 표시(건수, 인원 등)를 정확하게 기재 바람.
-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정신 질환 혹은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등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합정동에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등급이 낮아진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함.
- 합정동이 23통이고, 주민자치위원이 총 17명임. 합정동 규모에 비해 주민자치위원이 적다고 생각됨.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많으므로 모집을 더 해주길 바람.
-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수강률 50% 미만인 강좌가 있음. 이런 강좌는 수강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는 새벽까지 운영하고, 이용료도 받고 있음. 반면 합정 스페이스의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이용료 또한 무료임. 그렇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와 통일성면에서도 맞지 않는 면이 있으니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한번 체크해 주길 바람.

- 합정동 하늘길에서 지역 상업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으로 하늘길에 시비 지원이 되었고, 구 경제진흥과에서도 11대 상권육성 사업으로 하늘길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불어 합정동에서 1,500만원 정도를 들여 하늘길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람. 합정동에는 화력 발전소도 있고 기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니, 환경 관련 분야를 살려 동 특수사업으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임.
- 동 상생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민선8기 들어 새로 생긴 위원회이므로 더 잘 운영이 되었음하는 생각임. 동 상생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회의 안건, 결과, 지급 조서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람.
- 합정동은 청년, 중장년층 인구가 타동보다 많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동 상생위원회의 청년 위원 수를 비율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주민자치위원회, 동 상생위원회 위원 명단, 경력포함하여 자료 요청함.
- 동 상생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관련 회의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수당이 지급된 바가 있음. 이후 반납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합정동 행복한 일터만들기 일환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초키우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 중 소수 직원을 선발해 격려 시상을 함. 36년 공직생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방식의 격려는 직원들 입장에서 실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므로 지양해 주길 바람.

- 하늘길로 이어지는 골목여행 추진 탐방코스에 '정몽주 동상'이 있음.
정몽주 동상이 합정동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몽주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니만큼 이 부분을 살려 동 특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음.
- 반려견이 있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애완견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 합정동 '댕댕이 모여라' 사업은 좋은 취지의 특화사업이라 생각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 동주민센터에서도 케이블을 연결해서 마포구의회 회기 중 복지도시, 행정건설 위원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직원들의 고충,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의 마련과 직원들이 진정 원하는 격려와 함께 동장, 간부들이 직원들을 늘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람.
- 무장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각 동마다 '누구나 가게'가 있음. 동주민센터에서 문턱낮은 곳 혹은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 등 누구나 가게 위치를 파악해서 구청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준다면 마포구 전체 누구나 가게 로드맵 구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로드맵이 확대 구축되어 주민들이 구글 지도나 카카오 등을 통해 누구나 가게 위치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또한 동주민센터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최일선기관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개선됐음 좋겠다하는 의견을 동에서 구로 전달해 주길 바람.
- '아주 작은 음악회'의 근본 취지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개최 현황을 보면 참여자가 직원, 혹은 실뿌리 동행단, 일자리 참여자 등 특정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길 바람.

- 마포구가 특히 소각장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고,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쓰레기 분리배출이 생각보다 헛갈리는 것도 많고 실제로 제대로 올바른 분리 배출이 쉽지 않음.
이에 합정동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함. 앞으로도 직능단체 회의, 행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람.
- 합정동에는 구립경로당이 3군데 있음. 경로당 현황을 보면 이용 인원 대비 면적이 넓고 합정동에는 마포시니어클럽이 위치해 있는 만큼 합정동 경로당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경로당에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있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함. 더불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해 주길 바람.
- 합정동 노인 인구에 비해 경로당 3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합정동을 다니다보면 무더운 날씨에 무더위쉼터가 멀다 보니 그늘에 앉아 계시는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음. 고령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구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합정동 하늘길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마련해 주길 바람. 합정동 이동하는 길이 경사가 있어 노인분들이 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인분들을 위한 어르신 의자, 효도의자 등 설치에 동에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람.

- 새마을 자율방역 시행 시 모기 유충이 많은 시기에 선제적으로 모기 유충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적 방역을 하면 이후 방역이 굉장히 수월해짐. 용강동도 들쭉날쭉 체계없이 방역하지 말고 하수구라든가 모기유충이 많은 곳을 집중적,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주길 바람.
- 합정동이 넓은 지역이니 만큼 방역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새마을 자율방역 근무일지에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 서명시에는 이름 석자를 본인 필체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원칙에 따라 근무일지 등 서류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 합정스페이스 오전에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 근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함. 또한 활동 일지를 보니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음.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 바람.
- 상생위원회 취지는 지역의 상충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임. 그런데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본 취지는 엇보기 힘들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회의 내용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차별화되는 점을 찾기 힘들. 주민 간의 고충 처리 민원이 없음에도 연 4번을 꼭 채워서 상생위원회를 여는 게 맞는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람.
- 합정동 행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 등 행감 준비가 미흡하고 복지도시 위원들의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행감 준비에 있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마포복지재단

[22건]

- 복지재단 중장기운영계획에 대한 용역 평가 최종 결과 제출 요청
- 거리모금 캠페인, 모금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이 있을 경우 의원들에게 안내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길 바람.
- 복지재단 후원금 모금 관련하여 주민자치, 통장, 자원봉사센터 등 관변단체에 모금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많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금활동으로 오히려 효도밥상의 취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도 있음.
/ 주민자치, 통장, 자원봉사센터 등 관변단체 후원금 내용 제출 요청함.
- 후원금품 모금에 있어 강압이 많다는 민원이 있음. 후원 모금 홍보 시 특별히 조심해 주길 바라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후원이 이루어지길 바람.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일반서류제출보다 자세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되어야 함. 일시적이든 정기적이든 후원 물품이 있음에도 정기가 아니라서 현물 후원실적에서 제외하여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안내 시 현물보다는 현금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후원금 모금 시 각별히 주의 바람. / 현물후원 실적 자료 (품목 포함) 제출 요구함.
- 복지재단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등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음. 복지재단은 수탁·운영 결정에 있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람.

- 후원품 491,059천원에 대한 후원물품 목록 자료 제출 요청함.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규정집 상 산하시설에서 복지재단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등) 제출 요청함.
- 효도밥상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음. 마포는 경로당이 잘 되어있으니 효도밥상의 비용과 금액으로 경로당에 조리원과 관리자 지원 등을 해주면 효도밥상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분들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한번 검토 바람.
- 6월9일 제2반찬공장의 가동과 함께 제1반찬공장이 중지됨. 이로 인한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세부항목별, 예산 세부내역과 계산서 등)에 대해서 검토 후 자료 제출 바람.
- 꿈나무 강무현장학금 지원 관련 어떤 식으로 장학금이 계획 되어지고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요청함.
- 재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이 고용협력과 청년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하나의 조례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기관의 조례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검토 바람.
- 효도밥상이 개소되면서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배식 등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효도밥상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이 있음. 효도밥상 개소를 늘림으로 인하여 다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피해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바람.
- 꿈나무 강무현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육분야의 장학사업으로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장학재단 소관이라고 생각함. 복지재단의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장학업무 카테고리 대하여 검토 바람.

- 효도밥상이 4,000명으로 확대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가되는 100명도 소화시키지 못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제1공장을 멈추고 제2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과연 추후 500명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움. 침수로 인해서 소송, 하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 후 제2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검토 요청함.
- 마포복지재단은 효도밥상 외에 위수탁이 너무 많고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주 사업인 효도밥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사업 등 다른 분야 사업은 지양했음 하는 바람임.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관련 4월 진행한 산하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 명단 및 교육 시행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함.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규정집 제6장 지도감독/ 제20조(지도점검) 제2항 '의회에서 권고 및 요청이 있을때'를 넣어서 개정바람.
- 하반기에 급식기관 40개소로의 확장 계획이 있음. 무엇보다도 급식소 장소 발굴이 중요하므로 어르신동행과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장소 선별하여 기존 급식기관 이용하시다가 중단된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효도밥상은 현재 6찬으로 제공하고 있음. 반찬 수를 3~4찬으로 줄이더라도 현재보다 더 알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바람.
- '센터장이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의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검토 바람.
- 복지재단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 사례 자료 제출 요구함.

나.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5년 8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